

조기 대선 기대감 보폭 커진 잠룡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에 '호남 후보' 김영록 지사 출마 주목
여권, 김문수 장관 행보에 큰 관심

설 연휴를 거치면서 정가가 빠르게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여부에 따라 상반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권 주자들의 행보가 덩달아 분주해졌고, 여야도 대선 준비에 본격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관련기사 3면>

여야 잠룡들은 긴 설 연휴기간 동안 형성된 국민 여론이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민생 행보를 펼치면서 조기 대선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우선 여권에서는 다자-양자 경쟁력을 두고 각축전을 펼치고 있고,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독주 속에 비명계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뒷발인 호남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호남 후보' 기치를 내걸고 최근 '조기 대선' 출마의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무엇보다도 여야 중도 확장에 대한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세 확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면서 잠룡들의 중도 공약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권에서는 최근 당 지지율 상승세와 맞물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잠룡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국면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사실상 대권 도전 의지를 피력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잠룡 중인 한동훈 전 대표도 내달 중에 행보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경우 아직 대선 출마와 관련

해 별다른 언급이나 움직임이 없지만 계속 여론조사 상위권을 유지할 경우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당내 경선 단계에서부터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당내에서는 최근 지지율 상승에 대해 '착시 효과'를 경계하면서 강성 보수 세력 결집에 집중하기보다는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가 장악한 당의 권력 구조상 이 대표 외에 뚜렷한 대권 경쟁자가 없지만,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에서도 지지율이 박스권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 고민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중도 확장과 당내 통합에 나섰고, 비명(비 이재명)계 인사들은 이 대표를 향해 '일극 체제'를 비판하는 등 견제에 나서고 있다. 이르면 오는 3월 말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 거법 2심 결과가 변수로 남아 있다. 1심의 의원직 상실형 같은 결과가 2심에서도 반복될 경우 이 대표가 입을 타격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잠재적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자신만이 호남을 대표하면서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며 대권 경쟁에 나설 뜻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줄곧 1위를 차지하는 등 지역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 대권 도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당 관계자는 "비명계 인사들이 움직이는 데는 이 대표 2심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독감·폐렴' 기승...광주시, 영락공원 화장시설 확대 운영

광주시가 영락공원 화장시설을 확대 운영한다. 최근 광주에서 독감·폐렴 등 호흡기 질환 확산으로 고령 사망자가 늘어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늘어나고 있는 화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독감 회복 시점까지 영락공원 화장시설을 확대 운영한다.

영락공원은 화장로 11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화장로 10기를 운영하며 1기는 비상용이다. 화장로 1기당 하루 평균 5회씩 가동, 총 49구(묘 이장에 따른 개장 유류 11구, 일반 시신 38구)를 화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영락공원 화장예약이 독감 유행으로 증가함에 따라 예약 현황을 지속해 모니터링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통 3일장을 치르는 장례가 화장시설 과밀화로 4일장으로 치러지는 사

례가 발생하면 1~3단계에 따라 대응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1단계는 수요가 적은 개장유류 화장로를 일반시신 화장로로 변경한다. 개장유류 화장로 2기를 일반시신 화장로로 추가하면 일반시신 화장을 40구로 늘릴 수 있다.

2단계는 오전 7시50분부터 이뤄지던 개장유류 화장로(5기)를 오전 7시로 앞당겨 일반시신 화장로로 운영한다. 이렇게 하면 일반시신 화장이 45구로 늘어난다.

3단계는 오후 마지막 운영시간을 늘리고 해당 시간에 일반시신 화장로로 변경된 개장유류 화장로 5기가 운영된다. 일반시신 화장은 최대 50구로 확대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설날 雪雪雪...그래도 고향의 정은 따뜻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광주송정역에서 귀경객들이 열차에 오르고 있다. 승차장에 남은 가족들이 떠나는 이를 향해 손을 흔들며 작별인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설 민심은 尹 빠른 파면·민생 회복”

광주·전남 국회의원이 전하는 분위기

설 연휴 광주·전남지역 지역민들은 민생 위기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을 화두로 삼았다.

연휴 동안 지역 곳곳을 살핀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윤 대통령 파면'과 '민생 회복' 등을 명절 밥상 키워드로 꼽았다.

양부남(광주 서구) 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은 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빠른 재판과 파면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부진한 지지율을 보이는 민주당을 격려하는 목소리도 컸다"고 전했다. 양 위원장은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 민생을 살려달라는 의견도 대다수였다"며 "민주당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과 민생 회복 지원금 등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해 드렸다"고 말했다.

주철현(여수)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내란으로 인한 정국 불안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자영업,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골목상권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며 "12·3 내란 사태로 극심한 사회경제적 불안 상태가 지속되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컸다"고 밝혔다.

정진숙(광주 동남)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소로 한숨 돌렸다면 서도

여론조사 민주당 부진에 불안감 추경·민생회복지원금 편성해야 탄핵 지지부진에 비난 목소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과정이 남아있어 안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며 "광주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윤석열 파면을 즉각 인용 결정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쳤다"고 말했다.

전진숙(광주 북구) 국회의원은 "분명히 윤 대통령이 구속됐고 내란이 명확하지만 TV를 봐도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니 불안함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았다"며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고, 속도가 느리지 않다고 설명드렸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먹고 살기 힘들면 빨리 이 판을 정리

제주항공 참사 한 달 사고원인 규명 장기화 ▶6면

복스 - '세계숲' 두렁, 앞뒤 ▶14·15면

KIA 네일·올러 외국인 원투먼치 '시동' ▶18면

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며 "정말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민생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도 정치적인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숨쉬기 구멍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박지원(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은 "연휴 동안 아무래도 먹고 사는 민생경제와 탄핵, 대선으로 대화가 모였다"며 "민주당은 왜 야권 전체 포함 192 의석을 가지고도 맥이 빠졌냐, '윤 대통령을 빨리 못 잡아들이고 현재 탄핵 심판마저도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 등의 불만과 민주당에 대한 비난이 많았다"고 말했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도 "정치 뉴스에 파묻힌 농업, 민생 등에 분노가 표출됐다. 설렘도 기대도 없는 초라한 명절 느낌"이라며 "대지도 민심도 좀처럼 풀리지 않는 얼음장이었다. 윤 대통령 구속기소 전 당장 끌어내리라는 주문도 쇄도했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당신의 다음 클래스를 향해,
그리고 당신의 여유로운 삶을 향해

The new EQA & EQB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암 전시장 062)714-5001 & 광주 임동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QA 2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5.1(도상: 5.4, 고속도로: 4.6) 1회 충전거리(km): 367, 공차중량(kg): 1985, 배터리 용량(kWh): 65.9
EQB 300 4M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4.1(도상: 4.3, 고속도로: 3.9) 1회 충전거리(km): 302, 공차중량(kg): 2135, 배터리 용량(kWh): 65.9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